

2020년 (6/20 실시) 제26회 법무사 1차시험 상 법 분석과 총평 - 차 상 명

1. 6개년 출제문항 구성 분석

6개년 문항 (30문제) 구성 분석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총	4	6	3	5	2	1
상행위	2	3	3	5	6	5
회사	16	12	15	10	14	14
어음·수표	4	3	4	3	2	3
보험	3	3	4	5	4	5
해상	1	3	1	2	2	2

2. 2020년 각 파트별 출제 영역 (총 30문제 중)

- (1) 상 총 (1문제) - 영업양도
- (2) 상 행 위 (5문제) - 총론 종합(2문제), 상사시효,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
- (3) 회 사 (14문제) - 주권,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주주명부, 주주총회,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주의 의결권과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총결의의 하자,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의 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책임, 신주발행, 회사 종합문제
- (4) 어 음 · 수 표 (3문제) - 어음의 위·변조, 백지어음, 어음의 배서
- (5) 보 험 (5문제) - 보험계약, 고지의무, 손해보험, 보험자대위, 상해보험
- (6) 해 상 (2문제) - 해상운송, 정기용선

3. 총평과 시험대책

- (1) 출제 영역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중복 출제된 부분이 전례 없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총에선 1문제만 출제되고, 상행위 파트에선 상사시효가 3문제에 걸쳐 나왔으며, 회사편은 주식회사의 기관 파트에서만 9문제나 출제되고 게다가 주주 의결권과 주총결의 하자는 중복으로 출제되어 출제 영역의 발란스 면에서 좀 지나친 감이 있어 보입니다.
- (2) 어음은 고루 출제되고 상대적으로 무난했으나, 보험과 해상은 판례가 까다로웠습니다.
어음은 제가 평소에 강조한 Big 3 어음의 위·변조, 백지어음, 기한 후 배서가 딱 나와서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이 5개나 출제되어 우리 시험에서 비중이 커져가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어음·수표 못지않게 보험 공부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 (3) 커트라인 기준 합격점 개수는 전체 30문제 중 대략 20개 정도로 봅니다.
이번 상법은 최근 2년 전 시험보다 비교적 까다롭게 특히 보험에서 어렵게 출제된 관계로 작년보다는 성적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점차 판례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역시 뒷다리 잡는 것은 조문입니다.
판례는 결론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고 더욱이 최신판례는 학원에서 마무리 정리를 통해 잘 준비됩니다. 그러나 조문은 규정 그대로를 외워야만하기에 더욱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평소 조문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